

종이 1톤을 만드는 데 30년생
소나무 수십 그루를 베어야
한다던데요?



NO

종이는 주로 펄프와 폐지로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분리수거된 폐지를 재활용한 종이 전체 생산량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훨씬 많습니다.

펄프는 불법 벌목되지 않고, 조림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었음을 인정받아야만 비로소 종이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국제산림관리협의회(FSC) 등의 산림인증을 받은 펄프를 수입해 종이를 만들고 있으며, 일부는 국내 산림지에서 발생하는 가지치기 부산물이나 간벌재(나무들이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여 잘 자라도록 솎아낸 나무)를 펄프 원료로 사용하므로 잘 자란 천연림(자연림)을 베어 종이를 만든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인류의 문명발달과 함께해 온
대체 불가능한 필수 소재, 종이

종이는 AD 105년 중국의 채륜이 발명한 이래 지난 2천년 동안 인류의 대체 불가능한 필수 품이었습니다. 오늘날 종이는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의 기초소재로서 그 쓰임새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나무를 베어서 종이를 만들기 때문에 산림을 파괴한다”는 잘못된 오해와 편견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학술적인 근거 없이 되풀이 되는 이런 주장에 대해 무엇이 진실인지 명확히 함으로써, 종이와 제지산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이 사용이 지구를 구한다

오해를 푸는 6가지 진실



종이를 만들면 울창한 숲이
파괴되지 않나요?



NO

삼림 훼손의 주요 원인은 종이 생산이 아닌, 신도시 개발이나 도로 건설, 공장 설립 그리고 산불입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삼림면적은 연평균 470만 ha가 감소했으며, 주로 아프리카와 남미 등 열대지역의 농지개발, 목축지 전용, 화전이나 농업/연료용 목재 채취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종이의 원료가 되는 펄프는 우리가 농사를 짓듯이 경작지(밭)에서 수확한 목재로 만들기 때문에 숲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무를 심고 가꾸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Q3

제지산업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지 않나요?



NO

종이는 화석연료 기반 소재에는 없는 탄소 중립성을 갖고 있어, 오히려 지구온난화를 막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종이의 원료가 되는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탄소가 그대로 고정된 상태에서 종이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제지산업은 조림지를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종이를 생산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Q4

재생지(폐지를 재활용해서 만든 종이)만 ‘친환경 종이’인가요?



NO

국제적으로 산림인증을 받은 펄프로 만든 종이 역시 친환경 종이로 틀림없습니다. 애초에 펄프로 종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 후 분리수거하여 다시 종이로 재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한 것입니다.

종이 자체가 친환경 소재이기 때문에 사용한 종이도 분리수거만 잘 된다면, 재활용으로 새롭게 탄생한 종이를 계속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이가 ‘친환경’인 이유입니다.

Q5

종이 포장이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자원낭비 아닌가요?



NO

플라스틱은 분해되는 데 500여 년 이상이 걸리지만, 종이는 짧게 3개월이면 자연 분해되므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플라스틱을 대체할 소재로 종이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분리배출을 통한 높은 재활용성과 목질섬유 특유의 자연분해성은 물론, 최근에는 내용물의 손상을 방지하고 신선도까지 유지해주는 종이 포장재가 개발되어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용되고 있습니다.

Q6

디지털시대인데 앞으로도 종이 필요할까요?



YES

전 세계적으로 종이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이는 IT와 만나 복사용지, 감열지, 디지털지, 라벨지가 되었고, 친환경 포장재로 개발되어 플라스틱을 대체하고 있으며, 의료/전자/항공 등 다양한 산업의 첨단 분야로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미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소재로 변모하는 종이는 지나온 2천 년처럼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할 것입니다.

